4부 구체적인 지침

# 죄 죽이기 11편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 낮아지는 묵상

4부 12장(158~173쪽)

> ❓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묵상하는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여덟 번째 지침으로 “늘 낮아져 있게 하는 묵상”을 권합니다. 묵상할 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분과 나 사이의 무한한 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입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고, 바울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시대의 우리는 얼굴을 본다”와 “성숙한 신자는 분명히 본다”는 두 반론에 오웬은 이렇게 답합니다. 복음의 지식이 탁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만큼도 살지 못했고, 지금 보는 것은 여전히 뒷모습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거룩한 외경심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워진 마음 밭에서는 죄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은 자책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과 함께 갑니다.

### • 지침 카드

## 📜 절별 정리

### 📜 1. 여덟 번째 지침: 늘 낮아져 있으라 (12장)

갈아엎습니다. 지침의 내용은 “나를 낮추고 내 비천함을 생각하게 하는 묵상을 실천하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늘'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무너지는 경험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웬은 이 묵상의 재료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 여덟 번째 지침은 '낮아지는 묵상'이다
2. 죄 하나가 아니라 마음 밭을 다룬다
3. 목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닌 늘 낮아진 상태
4. 재료 1: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무한한 거리
5. 재료 2: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

> ★ **로마서 8:13**
> 책 전체의 토대 구절. 이 장에서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여덟 번째 지침도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의 하나다

## 📜 2. 크신 하나님, 무한한 거리: 교만의 뿌리를 친다 (12장)

엄위하심이란,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이것을 많이 묵상할수록 “나는 작고 죄된 존재”라는 인식이 마음을 채웁니다. 오웬은 이 인식이 내재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 곧 교만을 친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의 사람을 메뚜기와 저울의 티끌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일 때 죄는 우리를 속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1.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내가 작게 보인다
2. 이 인식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친다
3. 욥과 하박국은 하나님을 뵙고 무너졌다
4. 성경은 사람을 메뚜기, 티끌에 비유한다

하나님을 직접 뵌 욥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본보기

[5]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박국 3:16**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몸까지 떨린 선지자의 증언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욥기 37:22**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는 직접 진술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사야 40:12-25**

하나님 앞의 사람을 메뚜기·헛것·티끌로 그려 비천함을 보여 줌

[12]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

## 📜 3.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모세도 뒷모습만 보았다 (12장)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그럭저럭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웬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읽는 잠언 30장에서, 지혜자는 자신이 짐승 같아서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며 그를 바위틈에 두고 등만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계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은혜 언약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뒷모습'이라고 부릅니다. 오웬은 요한복음 1:18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가 바로 이 모세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읽습니다.

1.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모른다
2. 지혜자도 거룩하신 자를 모른다 했다
3.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다
4. 최고의 계시조차 '뒷모습'이었다
5. 말은 많아도 아는 것은 적다

> **출애굽기 33:20-23**
>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등만 보게 하신 장면. '뒷모습' 표현의 출처
>
> 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 2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 **출애굽기 34:5-6**
> 모세가 받은 최고의 계시, 은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
>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잠언 30:2-4**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다는 고백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 📜 4. 낮아짐은 담대히 나아감과 함께 간다 (12장)

이 묵상은 자칫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자기 비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오웬은 그 길을 미리 막아 둡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묵상은 한 가지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녀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합 속에서 이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낮아짐의 목적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 크신 분이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신다는 놀라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는 나를 깎아내리는 고행이나 자책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에 기대는 일입니다.

1. 낮아짐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2. 경외는 '담대히 나아감'과 짝을 이룬다
3. 크신 분이 나를 자녀로 받으신다
4. 목적지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

**★ 히브리서 4:15-16**

오웬의 표현('은혜의 보좌에 담대히')이 기대는 구절. 경외와 함께 붙잡아야 할 나아감의 근거

## 📜 5. 첫 번째 반론: "우리는 이제 얼굴을 본다"? (12장)

반론은 이렇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름과 그림자로 자신을 가리셨지만, 지금은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으니 우리는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먼저 인정합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뒤의 지식은 율법 시대보다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의 눈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뜬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면서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12는 그 거울이 '희미하다'고 덧붙입니다. 당시 거울은 흐릿한 윤곽만 비추었으니, 우리는 수수께끼처럼 어렴풋하게 볼 뿐입니다.

1. 복음의 지식이 더 탁월한 것은 맞다
2. 눈이 아니라 여건이 밝아졌다
3. 수건은 벗었지만 여전히 거울로 본다
4. 그 시절 거울은 흐릿한 윤곽만 비췄다

**히브리서 1:2**

아들로 말씀하셔서 계시가 크게 밝아졌다는 인정

>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18**

수건을 벗었어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는 핵심 본문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고린도전서 13:12**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다'는 바울 자신의 해설

바울은 신약 시대 누구보다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을 어린아이의 생각에 비유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것은 귀하지만, 아이의 생각은 유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혀 짧은 소리로 웅얼거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 주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약속이 미래형이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절반도 안 된다고 했듯이, 우리도 그날 “천분의 일도 몰랐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다
2. 우리의 하나님 지식은 아이의 말과 같다
3. 하나님은 그 유치함을 받아 주신다
4. '얼굴로 봄'은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이다

> **고린도전서 13:9-11**
> 지금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으며 폐하여질 것
>
>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 **★ 고린도전서 13:12**
>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된다는 약속

> **요한일서 3:2**
>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날은 장래에 있다는 약속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뿐이다.”

### 📜 7. 왜 지금은 조금밖에 모를까: 너무 밝은 빛, 그리고 믿음 (12장)

오웬은 두 이유를 듭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볼 수 없다는 말은 그 빛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밝다는 뜻입니다. 해도 똑바로 못 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 놓고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마음속 우상이 됩니다. 둘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예"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하나님은 감당 못 할 빛에 거하신다
2. 머릿속 하나님 이미지는 마음의 우상이다
3.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4. 믿음은 하나님의 증언에 동의하는 것
5.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한다

> **디모데전서 6:16**
>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는 핵심 증거
>
>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 **고린도후서 5:7**
>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원리
>
>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8**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 8. 두 번째 반론과 답: 우리는 아는 만큼도 살지 못했다 (12장)

더 강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나 연약한 신자 얘기다.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이 반론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나 신자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오웬은 그 옳은 부분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순종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만큼 그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계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순종하기에 '충분한 만큼'이고, 우리 마음은 둔해서 붙잡은 것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뒷모습입니다.

1. 이미 순종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안다
2. 그런데 아는 만큼도 살지 못했다
3.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교제에 쓰는가
4. 계시는 '예배하기에 충분한 만큼'이다

독생자가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반론의 근거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6**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반론의 근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서 5:8**

신자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반론의 근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1:21**

(오웬이 빌린 표현)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 9. 결론: 외경심이 죄 죽이기의 토양이다 (12장)

이제 이 긴 묵상이 왜 죄 죽이기의 지침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심과 그분과 나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깨달으면, 영혼은 거룩한 외경심으로 채워집니다. 외경심으로 채워진 마음에서는 어떤 죄악된 욕망도 자라거나 번성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저절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오웬은 “여러분이 상대하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지만 4절에서 보았듯이, 그 불 같은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십니다.

2. 외경심 가득한 마음 밭엔 정욕이 못 자란다
3. 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 조심한다
4. 내가 상대하는 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 **히브리서 12:29**
>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떠올리게 하는 결론 구절
>
>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 **착각과 진짜 비교판**

|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 이것이 죄 죽이기다 |
| --- | --- |
|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는 영적 자신감 | 지금 아는 것은 뒷모습뿐인 어린아이의 지식임을 인정하는 겸손(고린도전서 13:12)<br>**고린도전서 13:12**<br>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 낮아짐 = 나를 미워하고 몰아세우는 자책 | 크신 분 앞에서 작아지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히브리서 4:16)<br>**히브리서 4:16**<br>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 신학 지식과 토론 실력을 쌓으면 거룩해진다 | 이미 아는 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
| 죄 하나하나와만 씨름하기 | 외경심으로 마음 밭을 채워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
| "잘 모르니 순종 못 해도 어쩔 | "이미 순종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다"는 정직한 인정 |

풀이: 이 편의 착각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책입니다. 오웬의 낮아짐은 둘 다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 작아진 자리에서 은혜를 더 꽉 붙잡는 것입니다. 이 외경심이 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토양이 됩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움직이는 죄의 성향.

**정욕(욕망)**
죄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끈질기게 원하게 만드는 움직임으로, 오웬이 특정한 죄의 성향을 부를 때 쓰는 말.

**외경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

**엄위하심**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

**뒷모습**
출애굽기 33장에서 온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아니라 일부만 본다는 뜻.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 덕분에 죄인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 자비와 도움을 받는 하나님 앞의 자리.

**믿음(이 편의 뜻)**

눈에 보이는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 💬 청년의 삶으로

### ✅ 이 편의 결론

- 여덟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나의 무지를 묵상해 늘 낮아져 있으라는 것이다.
- 복음의 지식은 탁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뒷모습'이다.
- 우리는 이미 순종하기에 충분할 만큼 알지만, 아는 만큼도 살지 못했다.
- 외경심으로 채워진 마음 밭에서는 죄가 자라지 못한다. 그 낮아짐은 자책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다.

###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12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4)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